

디지털디바이스,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참여

중견 TV 생산기업인 디지털디바이스는 모회사인 제누원홀딩스그룹, 시스윌 등과 공동으로 러시아연방 코미 공화국의 유전 개발기업인 <웨스트 오일>의 유전 지분 100%를 취득했다고 1월22일 공시했다.

디지털디바이스는 지분의 51%를 보유하게 됐으며 제누원홀딩스는 29%, 시스윌은 20%를 소유하게 됐다.

웨스트 오일은 코미 공화국의 Sosnogorsk 지역에 1160만km²에 달하는 광구를 소유하고 있는 유전 탐사 및 개발 전문기업이다.

웨스트 오일이 보유한 광구 중 2개 필드에서는 2002년과 2004년 각각 시추 탐사에 성공해 현재 원유를 시험 생산하고 있고, 나머지 5개 필드에서는 곧 시추 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디지털디바이스는 밝혔다.

디지털디바이스 관계자는 “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1억배럴에 이르고, 이를 매출로 환산하면 30억달러에 해당한다”며 “2007년부터 본격적인 설비투자를 해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1/23>